

지역문학운동의 유효성과 방향*

김 동 윤**

차 례

1. 들머리
2. 지역문학, 왜 운동이 필요한가
3. 현 단계 지역문학운동의 방향
4. 마무리

1. 들머리

근대 이후 국민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의 위상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국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관할하고자 한다. 국가는 개별 지역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 분야에서 본다면 “국가적 독점자본은 세계경제에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지역경제를 좀더 치밀하게 동원하고자” 하며 “중앙에 거점을 둔 독점자본은 각 지방에 대규모 분공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계열화하여 지배하고,

* 이 글은 「다시 생각하는 지역문학의 운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문학계간지 『리토피아』 2008년 여름호에 발표된 원고를 바탕 삼아 논지를 대폭 보강하여 논문형식으로 새롭게 쓴 것입니다.

** 제주대학교 교수

금융·유통·서비스 산업의 지점망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화폐·상품·서비스의 생산·분배·소비를 총괄적으로 장악하고자 한다.”¹⁾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주의 현상은 유별나다.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보듯이²⁾ 국민으로서의 삶이 유독 강조된다. 이는 서울 중심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기관과 국가기능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³⁾ 인구의 서울 집중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⁴⁾ 기득권층이 거의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산도 서울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⁵⁾ 따라서 ‘서울을 해체하자’⁶⁾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문학에서도 전국 단위로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울에 대한 논의로 귀착되고 만다. “민족국가의 지배자가 된 다수민의 역사는 최대한 찬양하고 그 내부에 포함된 이질적인 소수집단의 역사는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대의 역사관”⁷⁾은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서울중심주의의 폐해로 귀결되고 있다.

지역문학운동은 국가주의와 서울중심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바라보는

-
- 1)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삼인, 2007), 166쪽.
 - 2) 「국민교육헌장」에서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이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이”자고 하였으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자고 강조한다.
 - 3) 2002년 현재 서울은 중앙행정기능의 100%, 경제기능의 76.1%, 정보기능의 93.6%, 국제기능의 92.7%를 보유하고 있다.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한울아카데미, 2002), 296쪽.
 - 4)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 인구는 2004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321만 명으로 전체의 47.8%이며 그 중 서울 인구는 1017만 명이다.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개마고원, 2008), 56쪽.
 - 5) 2009년 6월 대전예총에서는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문예진흥예산 831억 원 중 지역협력 사업에 배당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하다”며 “배당된 50억 원마저도 수도권에 70%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은 문예진흥기금을 서울과 수도권에 독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예산마저 수도권 독식이라니」, 「충도일보」, 2009. 6. 29.
 - 6) 김승환,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전망—신지역주의」, 『제주작가』 2000년 하반기호, 275쪽. 이는 물론 ‘부당한 힘의 근원지인 서울중심주의를 해체하자’는 말이다.
 - 7)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197쪽.

데서 출발한다. 왜곡된 현실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성찰이 없이 지역문화를 운위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지역문화 논의는 지역이 처한 현실과 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은 서로 연결된 소우주'라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소우주"이되 "오늘날의 지역은 어느 곳이든 격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나라 전체, 전 인류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⁸⁾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는 그 효용성을 잃고 있는 반면 지역의 위상은 거듭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국가의 역할이 약해지고 초국가적 공간이 출현함에 따라 국가 단위의 정체성은 약해질지라도, 기존의 국가를 구성했던 하부단위인 지역의 정체성마저도 초토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⁹⁾ "지역이 중심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지배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민족, 국가라는 문화적인 재현장치를 통해 지역이나 종족의 차이를 모두 묻어버렸던 억압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¹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근래 들어서 활발해지는 지역문화 담론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씌어졌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동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지역문화운동의 구체적인 전개 방향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지역문화, 왜 운동이 필요한가

변방, 주변부성, 비주류, 소외 등은 지역문화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8) 이회환, 「한국문학의 토양을 재토할 지역문예지의 역할」,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역락, 2008), 476~477쪽.

9) 장희권, 「문화연구와 로컬리티」, 『비교문학』 제47집(한국비교문학회, 2009), 185쪽.

10) 위의 글, 198쪽.

단어들이다.¹¹⁾ 물론 이러한 단어들 이 지역문학이 처한 현실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서 감지될 수 있는 패배주의적인 부면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선 안 된다.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심에서 소외된, 주류에 끼어들지 못한 등의 수식어를 연상하면서 지역문학의 논의를 펼쳐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주의에 젖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스스로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중심부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의 변형된 표출일 따름이다. 이런 태도야말로 “맹목적인 모방의지(굴종, 노예의지)”¹²⁾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이런 패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현 단계 지역문학운동의 시작이다. 패배주의적 인식으로는 운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여기에서 왜 지역문학이 필요한지, 그것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모룡·김승환·박태일·이현식·이희환·하상일 등 여러 비평가 혹은 연구자에 의해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구모룡은 ‘비판적 지역주의’(인용문 ①)를, 김승환은 ‘신지역주의’(인용문 ②)를, 박태일은 ‘지역구심주의’(인용문 ③)를 각각 내세웠다.

①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localism) (...) 이것은 일국적 수준의 논리로 등장한 과거의 지방주의(지역 중심주의)나 변증법적 지역주의와는 달리 전 지구적 시스템과의 연관에서 지역을 인식한다. 비판적 지역주의에서 지역은 새로운 가치 생성의 공간이다. (...) 지역은 전통과 근대, 식민성과 근대성, 문명과 자연 등의 제가치들이 혼재한 장소이며 서로 양립하는 가치들이 종합되는 가운데 형성적인 가치들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일국적 수준을 넘어

11) 남기택은 지역문학의 개념들이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한 주변부 문학, 문학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문학, 그럼으로 인해 중앙문단의 시혜로부터 내용적·형식적으로 소외된 문학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기택,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국학자료원, 2007), 55쪽.

12) 구모룡, 「부산시의 문화정책과 부산민예총의 문화운동」,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신생, 2005), 193쪽.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세계체제의 전망을 지닌 비판적 지역주의는 자기비판을 가장 중요한 계기로 앞세운다. 그 다음으로 비판의 과녁은 타자를 향하며 이러한 비판의 양날로써 담론의 합리성을 견지한다.¹³⁾

②국가와 민족이라는 절대적이고 또 역사적인 명제는 중심이 아닌 다른 공간과 중심축에 있지 않은 다른 개인들을 심각하고 잔혹하게 지배하고 또 통제했다. 그 중심의 상징은 서울이다. 그럴진대 이데올로기에 경화(硬化)하여 화석화한 서울을 해체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새롭게 인식해 보자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주장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 신지역주의가 있다. 각 지역들의 새로운 관계와 아울러 일정 정도의 독자적인 생명력을 부여하는 신지역주의적 인식은 지역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사실의 재해석이 아니다. 신지역주의는 세계국가나 민족국가 또는 노동자 계층 등과 같은 거대담론들을 해체하고자 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지역이 자신의 생명력을 가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다.¹⁴⁾

③이제 지역은 더 이상 중앙·중심에 얽매어 있는 지방이나 변두리도 아니다. 그곳을 향해 노여움만 펼쳐대거나, 자기도취의 담장을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향토나 절대가치의 공간도 아니다. 지역은 그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곧 중앙패권주의나 지방우월주의에 맞선 지역구심주의(local centripetalism) 의식이 그것이다. 중앙은 '우리' 지역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한 지역일 뿐이다. 지역가치와 지역다양성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 가능한 삶을 인식의 중심에 세우는 수평적 틀이 바로 지역구심주의다.¹⁵⁾

이런 방법론들은 문학에만 한정시켜 제기된 것은 아니나 결국에는 지역문학론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소의 차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적 실천을 토대로 세계를 내다보는 문학을 공히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13) 구모룡, 「주변부 지역문학의 위상」, 『지역문화와 주변부적 시각』(신생, 2005), 33~34쪽.

14) 김승환, 앞의 글, 278~279쪽.

15) 박태일, 「지역시의 발견과 해석」,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청동거울, 2004), 41쪽.

지역에 굳건한 바탕을 두면서 중심과의 변증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해 나간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앙이나 민족문학과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 논리라든가 배타적 혹은 대타적 개념을 내세워서 곤란하다는 점이다. 지역의 대타향으로 나라나 중앙을 상징하는 것은 지역을 이항대립적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기인한다. “지역문학은 민족문학의 외연을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므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은 (...) 대타적 개념이 아니”¹⁶⁾라는 것이다. “지역을 전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고민”하지 않은 채 “분절된 지역주의”¹⁷⁾만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곧 지역이기주의나 맹목적 향토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지역문학 담론은 지역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한 나라는 물론 세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을 찾아”냄으로써 “지역을 통하여 나라와 세계를 본다”¹⁸⁾는 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문학 담론이 “지역외적(즉 국가적 및 세계적) 조건과는 무관하거나 분리된 단위로 서술되”¹⁹⁾어서는 곤란하다. “오늘날 실제 지역사회가 자본주의 정치 경제 체제 내에 있다는 사실”²⁰⁾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다.

현 단계 지역문학의 위상을 잘 짚어낸 다음과 같은 발언은 매우 주목된다. 지역문학운동의 방향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역문학은 자기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활현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7,80년대 리얼리즘문학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면서도 지역문학은 생활을 구체적인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일상의 차원과 연계시킨다

16) 이현식, 「지역문학을 둘러싼 문제들」, 『문화도시로 가는 길—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찰』(다인아트, 2004), 26~28쪽.

17) 이현식, 「지역문학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할 것인가」, 위의 책, 36쪽.

18) 구모룡, 「지역에 사는 의미」, 앞의 책, 65쪽.

19) 최병두, 앞의 책, 137쪽.

20) 위의 책, 165쪽.

는 점에서 80년대 문학이 갖고 있는 한계로부터 탈출한다. 아울러 방향 없는 일상성과 거리를 둔다는 면에서 90년대 신세대문학과 스스로를 구별한다.²¹⁾

지향점이 분명한 구체적인 생활과 일상 현장의 문학이 지역문학이라는 주장이다. 바로 이런 점은 “지역문학의 강조로써 구체적인 삶을 담지 못하는 현대문학에 대한 경계가 되기도 한다”²²⁾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역문학이야말로 위기에 빠진 오늘의 한국문학을 구하는 명약이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판의 현실은 막막하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아직도 문학이란 것을 붙잡고 있으나, 게다가 그 변두리인 지역문학이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하는 뜨악한 눈길들이 만연해 있다. 지역문학에 대해 이른바 문학권력의 대부분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역력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조차도 대부분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스스로 지역을 버리고 중앙으로 샅터를 옮기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사실상 지역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역문학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지역은 망각의 대상일 뿐 기억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의미화하기 어려운 문제적 공간이 되고 있는”²³⁾ 형편이니, 지역문학은 이중 삼중의 견고한 장벽에 막혀 있다고 하겠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운동’이 필요하다. 몇몇 뜻있는 이들의 외침이나 주변 사람들의 심정적 동조만으로는 그 장벽이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지역문화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지역문화운동을 둘러싼 현실은 아직 어둡다. “지역의 문화운동은 문학의 소수 독점화와 중앙집중화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문학의

21) 이현식, 「지역문학을 둘러싼 문제들」, 앞의 책, 24쪽.

22) 구모룡, 「지역문학: 문학적 생성 공간으로서의 경계 영역」, 앞의 책, 22쪽.

23) 하상일, 「지역문학과 장소상상력」,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신생, 2009), 19쪽.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²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항적인 민중운동에서조차 (...) 중앙의 지배운동의 논리 속으로 통합되거나 그 논리에 의해 대리 기억되고 있”²⁵⁾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80년대에도 지역문학(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사정과 성격이 꽤 다르다.

1980년대의 변혁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민중운동이 중심이었다. 일상이나 생활상 같은 미시적인 분야보다는 중앙정치를 상대로 한 투쟁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있었다.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구호로 내걸었음에도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정치투쟁 일변도 속에서 실제로는 민중의 생활적 실감으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 있었”²⁶⁾고, 당시의 “혁명문학의 여러 조류들은 그 진보적 영웅성을 높이 평가해야 함에도 그 운동이 민중과 함께 성장한 것이 아니며, 민중의 이익을 위해 투쟁했지만 민중과의 현실적 유대가 튼튼하지 못했”²⁷⁾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엄정한 평가의 지점에서 현 단계 지역문학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1980년대의 지역문학(문화)운동은 “민주화 투쟁의 지역적 분산이라는 전략의 측면”이 강했으며 “전략과 전술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설정된 타도 대상이 있었다.” 반면에 오늘날에 와서는 “전략과 전술이 다소 희미해졌고 설정된 목표 역시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이 뿌리박고 있는 지역 그 자체의 독자적 생명력 확보와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²⁸⁾는 것이다.

24) 민현기, 「대구 지역 문학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법 연구」, 『어문학』 제80집(한국어문학회, 2003), 266쪽.

25)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화연구』32(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9쪽. 김용규는 같은 글에서 “로컬의 진보적 지식인들조차 로컬 현실의 왜곡된 삶을 바로잡기보다 중심부 문화를 지향하는, 즉 주변과 중심 간의 왜곡된 구조와 로컬의 소외된 삶을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32쪽)

26)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민족문학사학회, 1995), 76쪽.

27) 위의 글, 70쪽.

28) 김승환, 앞의 글, 282~283쪽 참조.

목표가 다원화되고 전략·전술이 회미해진 만큼 현 단계의 지역문학운동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그것이 한국문학 혹은 세계문학을 위해서도, 지역문화·민족문화·세계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지향이기에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

“문학운동이란 넓게는 한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과제를 문학적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움직임”이며 “좁게는 어떤 문학단체 또는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특정 유파를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전개하는 집단적·사회적 움직임”²⁹⁾이다. 지속적·계획적·집단적·사회적 움직임을 통해 지역문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운동 주체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과제를,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천적 문화운동을 전개시켜야 하는 과제를 각각 안고 있”³⁰⁾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문학운동을 하려면, 운동 주체가 무엇보다도 지역문학을 통해 문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신념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 지역민으로서의 치열한 삶을 회복해야만 국민으로서도 세계인으로서도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3. 현 단계 지역문학운동의 방향

지역문학운동은 당위성 강조와 선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지역문학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기서는 다섯 분야로 나누어 그 방향을 모색해 본다.

29) 민현기, 앞의 글, 265쪽.

30) 장희권, 앞의 글, 199쪽.

3.1. 작가(창작): 리얼리즘 정신과 장소상상력

우리가 문학에서 지역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삶의 현실성을 회복하자는 의도”³¹⁾가 가장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삶의 현실성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개별 주체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발을 디딘 곳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자기가 딛고 사는 터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지방에서 살았던 또는 살아가는 민중의 꿈과 투쟁과 좌절, 곧 지방의 혼을 자기 안에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대지에 대한 경배이다. 이 마음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³²⁾

발 디딘 지역에 대한 경배(敬拜)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지역문학을 생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역에서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역에서 지역의 독자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고방식은 서울의 작가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빙자해서 문단권력을 탐하는 것”³³⁾에 다름 아니다.

현재 발 디딘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실천하는 가운데, 시야는 민족과 세계를 향해야 한다는 지역문학의 논리는 리얼리즘 정신을 필요로 한다. “타자화, 대상화, 사물화되고 있는 지역에 역사성과 구체성을 불어넣어 형성적인 서사를 그려내”³⁴⁾려면 리얼리즘 정신에 바탕을 둔 지역문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강민은 ‘탈근대문학=탈국가문학=리얼리즘’³⁵⁾이라는 도식을 제기한 바 있는데, 나는 거

31) 이현식, 「지역문학과 지역문예지」, 『작가들』 2003년 상반기호, 11쪽.

32) 최원식, 『황해에 부는 바람』(다인아트, 2000), 35쪽.

33) 이현식, 「80년대의 기억을 넘어 베트남으로」, 『문화도시로 가는 길』, 84쪽.

34) 구모룡, 「지역문학: 문학적 생성공간으로서의 경계 영역」, 앞의 책, 25쪽.

35) 최강민, 「새로운 리얼리즘을 위한 비판적 통찰」, 『내일을 여는 작가』 2008년 가을호, 75쪽.

기에 지역문학을 추가하여 '탈근대문학=탈국가문학=지역문학=리얼리즘'이란 도식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확실한 의미가 있다. 지역의 정신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작가가 자신의 지역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취재하고 공부하여 집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문제에 실감 있게 다가서는 데는 한계가 많게 마련이다. 그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지역문학으로서의 가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역사와 현실은 논리적·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경험적·감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경험적·감성적 이해가 충분히 수반되지 않는 문학으로 독자의 감동을 끌어오기가 과연 쉽겠는가. 따라서 지역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는 일은 해당 지역의 작가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작가들은 그런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근래에 인천에서 간행된 조혁신 소설집 『뒤집기 한판』(작가들, 2007)은 주목할 만하다. 인천 송림동 산동네를 배경으로 번두리 인생의 신산한 삶을 밀도 있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젊은 작가가 보여준 지역문학의 전범이 될 만하다. 제주에서 나온 오경훈의 연작소설집 『제주항』(각, 2005)도 18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전개된 제주섬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제주항을 매개로 삼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는 문제작이다. 제주항이 그동안 여러 면에서 계속 탈바꿈해 왔듯이, 제주항을 둘러싼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상도 시시각각으로 변모해왔음을 아홉 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다. 이명랑의 『삼오식당』(시공사, 2002)은 영등포시장의 식당집 둘째딸로 나온 자란 작가가 시장통 사람들의 절실한 일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주목받았다. 서울문학도 하나의 지역문학임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리얼리즘 정신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위의 작품들은 또한 지역문학에서 장소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추상적이고 막연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 송림동 산동네, 제주항, 영등포시장이 소설로

인해 좀더 유의미한 장소성을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개별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상당수의 작품들은 “지역문학으로서의 장소성의 확대와 심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엇비슷한 풍경의 재생산에 머무르는 장소상실의 한계”³⁶⁾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시인들이 바다를 주요 소재로 삼아 시를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이미지나 상징, 환상의 방식으로 수용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굳이 부산의 지역성을 표상한 시라고 내세울 이유는 전혀 없다”³⁷⁾는 것이다.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신을 견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현실과 사람과 역사와 삶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문학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에 따뜻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지역문학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³⁸⁾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작가들은 조급하게 인기 작가의 경향을 좇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문제에 대한 치열한 탐색을 우직하게 전개해야 할 줄로 안다.

특히 명심할 사항은 지역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되 그것을 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간섭하는 국가와 제국의 모순을 함께 드러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탐구 작업은 지역의 문제가 결국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 지구적 현실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발전과 탐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현기영이 「순이 삼촌」(1978) 이후 일련의 작품에서 제주의 4·3에 대해 천학함으로써 한국사와 세계사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성공하였음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지역문학은 또한 일상성을 근접한 거리에서 포착하는 데에 더 적절하고 효과적이다. 전 지구적인 시야로 그러한 일상성을 포착하면 성공한 작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라는 전체 단위가 아닌, 작은 단위로서 지역

36) 하상일, 「지역문학과 장소상상력」, 앞의 책, 18~19쪽.

37) 위의 글, 18쪽.

38) 김화선, 「지역의 힘, 지역의 문학」,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국학자료원, 2007), 226~227쪽.

을 바라볼 때 종족성, 계급, 여성, 환경, 지역문화, 노동운동 등의 '사소한' 문제들이 시야에 더욱 잘 들어³⁹⁾오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듭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게 있다. 4·3을 전 지구적으로 사유하고, 국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것은 4·3중심주의를 넘어 4·3과 지구적 상호침투의 시각 속에서 4·3을 통한 인류적 평화를 섬 없이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가능하다.⁴⁰⁾

고명철이 제주지역문학의 중심 담론인 4·3문학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4·3을 제주의 문제로만 한정하여 형상화할 때 그것은 화석화될 뿐이기에 끊임없이 전 지구적인 면에서 상호침투의 시각을 견지해야 그 의미가 온전히 살아난다는 것이다. 지역문학 전반의 창작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독자(수용과 향유): 대중 속의 생활문학

근래 들어 문학이 대중과 유리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문학 내적인 요인으로 나는 문학이 대중의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본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에는 굿이 매우 성행했다. 굿판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즐겼다. 아이들야 그저 신나고 재미있어서 굿판을 기웃거렸겠지만, 어른들은 왜 그랬을까? 굿판에서 살아 있는 신화인 본풀이가 흥미 있게 구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들으면서 제주사람들은 웃고 울었다. 본풀이 속에서 그들 자신의 삶과 애환을 읽기도 했다. 그들은 글을 알든 모르든 구전되는 본풀이를 통해 문학을 향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굿을 강력히 탄압하였고 매마침 텔레비전이 안방을 파고들면서 굿판은 점점 시들어갔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39) 장희권, 앞의 글, 198쪽.

40) 고명철, 「제주, 평양 그리고 오사카」, 『배꽃이 피다』(케이포북스, 2009), 247쪽.

읽어내던 신화를 멀리하고 전파를 타고 오는 서울 사람들 이야기에 이목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글을 읽을 줄 안다. 문학작품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잘 읽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나 흥밋거리는 텔레비전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문학을 읽겠는가. 자신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다루지 않는데 왜 거기에 기웃거리겠는가. 문학은 대중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한다. 나는 지역문학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문학이 독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문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제 문학은 더 이상 권위를 내세워서 안 된다. 문학이 문화권력의 중심 자리에 있던 시대는 지나가고 그 권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대와 더불어 문학에 지나친 권위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문물이 권력처럼 다가왔듯이,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은 우리 문학은 글을 하는 선비 즉 문사(文士)를 존중하던 전통과 맞물리면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근대식 출판문화에서 책을 내는 것도 어려웠으니 작가는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시대에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 흥밋거리는 도처에 있는 데다가 누구나 쉽게 책을 펴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책을 출간하는 일은 19세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측면도 있다. 과거엔 평소에 써둔 글을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묶어서 책을 내지 않았던가. 대부분은 팔리기를 바란 행위가 아니었다. 이런 면을 본다면 이제 누구나 작가인 시대를 지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작가인 시대에는 지역문학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서로가 작가이면서 독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증양문단의 알팍한 명성을 무기로 지역에서 군림하려는 몇몇 문학적 토호”⁴¹⁾가 있다면 과감히 배척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41) 이현식, 「지역문학과 지역문예지」, 『문화도시로 가는 길』, 47쪽.

따라서 지역문학운동은 생활문학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글쓰기의 생활화, 생활화된 글쓰기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일”⁴²⁾을 통해 생활문학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 생활 속의 문학, 작은 중심이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만들어간다는 생각”⁴³⁾이 필요하다. 이런 생활문학운동은 지역의 작가와 문학소비자이자 애호가인 지역시민이 서로 연대를 이루는 작업이다.

문학의 밤, 시낭송 행사, 문학교실 등이 자주 열려야 한다. 그런 행사를 통해 문학과 생활, 문학공간과 일상공간이 별개가 아님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작가의 낭송·낭독만을 독자가 경청하는 식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작가와 독자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낭송·낭독하는 수평적이고 소통적인 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문학의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은 지역문학의 장소성 회복과 더불어 지역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제주작가회의에서 해마다 4월에 개최하는 ‘작가와 함께 떠나는 4·3문학기행’은, 4·3문학의 현장을 답사하며 문학강좌, 시낭송, 이야기마당 등을 가짐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의미 있는 기획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밖에도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읍·면이나 마을 등 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학기행 등 다양한 문학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문학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문학관광을 제도화하여 지역문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들의 문학교양을 살찌”⁴⁴⁾운다면 지역문학은 문학의 대중화와 더불어 요긴한 문화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가를 활용한 문학대중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대두된 ‘여가 공동체’를 공략 대상으로 삼아야”⁴⁵⁾

42) 이현식, 「지역문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 위의 책, 17~18쪽.

43) 이현식, 「우리가 중심이다!」, 위의 책, 50~51쪽.

44) 이순욱, 「지역문학과 문학현장—통영·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3(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191쪽.

45) 강준만, 『지방은 식민지다』(개마고원, 2008), 336쪽.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강준만은 지역문화를 “지역의 정체성 표현과 공동체적 가치 양양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여가·오락 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대외적 경제효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⁴⁶⁾로 정의하면서 지역문화와 대중문화와의 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⁴⁷⁾ 이는 지역문학 차원에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문학이 생활문학이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대중의 삶에 밀착한 문학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권위를 지키면서 대중을 이끌려고 하기보다는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대중과 함께 하는 문학적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 생활문학운동이야말로 지역문학인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요긴한 일이다.

3.3. 비평과 연구: ‘지역의 눈’과 비판적·객관적 시각

지역문학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작가가 지역의 특성을 녹아낸 문학에 주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풍토는 작가와 독자만의 노력으로 조성되기 힘들다. 여기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지역문학 창작도 그러하지만 특히 지역문학에 대한 평론이나 연구는 더욱 미미한 편이다. “지역비평은 ‘지역’이라는 열악한 조건과 ‘비평’이라는 더욱 열악한 조건이 만나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⁴⁸⁾으며, 그런 조건은 연구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비평과 연구가 없이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니 만큼 창작 못지않게 비평과 연구의 바람직한 지향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46) 위의 책, 247쪽.

47) 강준만은 “짜워선 지역문화가 대중문화를 이길 수 없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있다. 그건 바로 대중문화와 지역문화의 융합이다. 대중문화에 각기 다른 지역 문화의 특성을 가미해 ‘다름의 미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위의 책, 250쪽.

48) 하상일,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 앞의 책, 79쪽.

부산·경남지역은 지역문학의 연구와 비평에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지역이다. 이회환은 근래 이 지역의 지역문학론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모룡의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2005), 박태일의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2004), 하상일의 『주변인의 삶과 시』(2005)를 통독하고서 세 저서가 묘하게도 지역문학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이론과 실천상의 주요 영역을 각기 대표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구모룡의 논저가 지역문학론의 이론적 지표를 마련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면, 박태일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태면서 실천학문으로서 지역문학 연구의 영역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주고 있다. 젊은 비평가인 하상일은 이러한 이론적 성과를 확인하듯이 지역작가와 작품에 대한 성실한 실제비평을 보여주었다.⁴⁹⁾

이회환이 적시했듯이 위의 세 저서는 지역문학론의 실천영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론적 틀을 세우고, 학문으로 연구하고, 실제비평에 힘쓰는 일은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작업들이 작품 속에서 진정한 지역성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려면 연구자나 비평가도 ‘지역의 눈’⁵⁰⁾으로 문학작품, 문학현상, 문학사를 바라보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나 비평이 지역성에만 경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문학’의 보편성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사회역사적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역문학의 질적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하는 장(場)이 되”⁵¹⁾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지역문학의 연구자와 비평가는 비판적·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문학에 대한 애정이 필수적이되 맹목적인 애향심이나 정실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상일은

49) 이회환, 「지역문학의 연대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2006 봄호, 68쪽.

50) 지역문학 연구에서 ‘지역의 눈’을 견지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김동윤,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55~57쪽 참조.

51) 하상일,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 앞의 책, 78쪽.

지역비평과 관련하여 이 점을 적절히 꼬집었다.

지역비평은 지역문학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객관적인 태도와 지역문학의 성숙과 발전을 목표로 한 자기 성찰의 목소리를 더욱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지역 스스로가 지역을 폄하하거나 배제하는 논리로 합리화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지역문학에 대한 자기 성찰을 토대로 진정으로 지역문학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⁵²⁾

지역문학 연구와 비평에서 유의할 점은 한국문학과와의 관련성 탐색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비평가들이 대부분 한국문학 전공자들이고 한국 내의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인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문학과와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지역문학의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크다. 지역문학을 하나의 독자적 단위로서 인식하는 가운데 주변 지역문학·한국문학·동아시아문학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생활밀착형’⁵³⁾ 지역문학연구이다. “적극적인 연구는 곧 지역사회와 문화에 대한 실천운동으로 연결되”⁵⁴⁾도록 지역문학 연구를 지향해야 할 일이다. 작가와 독자를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온전한 지역문학 판이 형성되도록 하는 데는 지역문학 연구·비평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관련 학회의 창립이라든가, 대학에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일 등도 필요하다. 지역문학 연구자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연결망으로서, 각 지역별로 모임이 있어야겠지만,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지역문학 관련 학회를 서둘러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마다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에 지역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교양과목도 이수토록 해야 한다.⁵⁵⁾

52) 위의 글, 77쪽.

53) 강준만, 앞의 책, 259쪽.

54) 위의 책, 263쪽.

그래야만 좀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역량을 갖추어 나갈 수 있어서 지역문학 담론을 운동의 차원으로 끌고 가기에 용이하다.

3.4. 사회적 연대: 횡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

지역문학은 창작에서부터 연구와 비평 등에 이르기까지 인접 분야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문학의 고유성만을 강조한다든가 독자적 울타리만을 고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횡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문학이야말로 통섭적이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연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형상화한 문학이라야 의미를 발한다. 확실하고 주도면밀한 천착 없이 지역적인 것을 대상화하는 작품은 관광객·여행객의 입장에서 쓴 작품과 다를 바 없다. 관광객·여행객의 입장에서 쓴 작품에서는, 비록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의 삶을 왜곡하고 감상적으로 대상을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연구나 비평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역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관련 전문가 등과 더불어 협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역동적인 현장성을 확보해야만 진정한 지역문학으로서 위상을 갖는다.

지역문학의 성격 자체가 그러한 만큼 지역문학운동에서도 당연히 다각적인 연대에 힘써야 한다. 연대를 위해서는 물론 자체적인 역량 결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문학단체의 활동이 공통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느슨한 집합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지역문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지역문학운동에서의 연대는 지역 내의 시민운동 단체들과도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문학단체와도 필요하다.

그 구체적 실천의 방략으로 지역문학론을 포함한 지역문화운동이 지역시민운동과 슬기롭게 연대하는 것 또한 매우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덧붙여본다. 이에서 더 나아가 지역문학론은 다른 지역의 문화운동 역량과의 교류와

55) 김동윤, 앞의 글, 59~61쪽 참조.

연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간에 직면하였다고 생각된다. 아직 각 지역의 지역문학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추스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안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과거의 향토주의나 지역 중심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⁵⁶⁾

바람직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야 올바른 지역자치도 가능하고 지역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에 지역문학운동은 건전하고 역동적이며 민주적인 지역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긴밀한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정부와는 사안별로 협조를 해 나가되 언제나 긴장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는 가운데 지자체가 문화적 마인드를 갖고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문화권리’를 지역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의 문화예산, 문화정책, 환경정책, 도시계획 등에 대한 지역민의 적극적 의사표명이나 관여”⁵⁷⁾라고 할진대, 그 권리를 적극적인 태도로써 쟁취해야 마땅하다.

지역이 글로벌 자본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이 그 지배를 “비교적 덜 받는 방안을 강구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로컬간의 연대일 것이다.”⁵⁸⁾ “지역문학의 문화적 연대는 (...) 정신과 사상의 공유 그리고 정서와 삶의 경험의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적 전망을 가”⁵⁹⁾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문학단체 간의 연대, 지역문예지 간의 연대 등을 도모할 때는 단순한 친목의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된다. 공동의 관심사와 주제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실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의 교류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교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림으로써 바람직한 지향점을 모색할 수도 있으리라

56) 이희환, 「지역문학의 연대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2006년 봄호, 77~78쪽.

57) 장희권, 앞의 글, 196쪽.

58) 위의 글, 191쪽.

59) 김승환, 앞의 글, 302쪽.

고 본다. 제주4·3 제60주년을 맞은 2008년 4월 제주작가회의에서 동아시아 섬 지역으로서 20세기 중반 참혹한 역사를 경험한 유사성이 있는 오키나와, 대만 작가와 함께 '기억과 상흔을 넘어, 평화를 향해'를 주제로 항쟁문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제문학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국제적 연대의 일례가 될 것이다.⁶⁰⁾ 해외의 유사한 환경에 놓인 지역과의 교류가 정체된 지역문학의 갱신에 더욱 필요하다.

3.5. 매체: 역동적인 소통의 장

지역문학운동은 적절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매체 투쟁은 문예지, 동인지, 신문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핵심 매체인 문예지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우선 지역에서 진행되는 문예지와 지역문학과의 관련성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冊子를 만들겠다는 情熱과 意慾은 값싼 문학이 갖는 孤獨을 즐겨서가 아니라 오로지 現下文壇의 中央集權制와 그 派別을 止揚하기 위한 二十代의 抗議의 姿勢 그것에 있고 現代文學이 갖는 人間救濟의 使命을 完遂하려는 데 있을 따름이다.

二十世紀 文學은 民主主義 文學이어야 할 때 우리 現代文學은 아직도 中央集權制란 테두리에서 모든 既成의 思想이나 知識에 依存하므로써 自身의 人間的 實體를 喪失하고 있는 지 오래다. 이런 現實에서도 끈질기게 우리는 果敢히 實踐的으로 무엇인가 創造하고 싶었고 作業을 完遂하고 싶었던 것이다.⁶¹⁾

위의 글은 1959년 10월 제주에서 창간되어 제2호로 종간한 문예지 『시작업(詩作業)』의 창간 취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시와 시론을 위주로 편집

60) 발제는 제주4·3문학: 현기영·고명철, 오키나와 전쟁문학: 가와마츠 신이치(川滿信一)·김웅교, 대만2·28문학: 란보저우(藍博州)·신정호가 맡았다. 심포지엄 내용은 『제주작가』 2008년 여름호에 '평화공동체를 꿈꾸는 상생의 문학'이라는 특집으로 실렸다.

61) 『편집후기』, 『시작업』 제1집(우생출판사, 1959), 98쪽.

된 이 잡지는 한국문단의 중앙집권적 경향과 파벌 현상을 지양하기 위해 20대 청년으로서 항의의 자세를 가지고 창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 집권제와 파벌의식은 문학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지역에서 문예지를 만들어낸다거나 유명문인들의 작품들을 게재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 삶의 문제를 바탕으로 삼는 가운데 문학적 실천이 전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업』에 실린 작품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지역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된다. 두 권에 실린 시 작품 가운데 지역성을 찾을 만한 작품은 김종훈의 「한라산정—애가(哀歌)」가 유일할 정도다. 즉 이들이 말하는 탈중앙의 논리는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했기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⁶²⁾

과연 우리가 지역문학을 부르짖되 선언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50년 전 『시작업』의 사례를 통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적 실천이 없는 문예지는 그 생산지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더라도 이미 지역문예지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지역문예지가 흔히 드러내는 맹점은 설익은 보편성 추구 전략으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예지가 문학적 보편성 추구에 경도되다보니 자연스럽게 문예지의 고유성과 지역성은 희소해지거나 무화되고 마는데, 이러한 문예지들을 과연 ‘지역문예지’라고 부를 수 있”⁶³⁾겠는가. “지역문예지가 오히려 지역문학을 소외시키고 있다”⁶⁴⁾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물론 “박제된 지역성, 지역의 박물관 기술에 치중하”⁶⁵⁾는 것도 곤란하다.

(지역문예지가(인용자 주)) 소의의 원천인 중앙에서 발간되는 유사한 잡

62) 김동윤, 「전란 후의 제주문학」, 앞의 책, 211~215쪽 참조.

63) 이희환, 「한국문학의 토양을 재토할 지역문예지의 역할」,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476쪽.

64) 하상일, 「지역문학에 대한 성찰과 지역문예지의 역할」, 앞의 책, 35쪽.

65) 구모룡,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크」, 『작가들』 2007년 봄호, 39쪽.

지들을 닮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세련된 문학성을 통해서 그 자신을 중앙문단의 대리자로 권력화하는 것 또한 지역문예지들이 경계해야 마땅하다. 문학과 지역성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자기가 더한 삶의 구체적 삶의 세목을 문학적 감동으로 선사하는 지역문예지의 찬란한 분화야말로 지역문예지가 한국문학에 신성한 영양분을 제공할 객체가 될 수 있는 제일의 조건이 아닌가 한다.⁶⁶⁾

지역문예지는 삶의 구체적 세목을 문학적 감동으로 선사할 수 있어야 지역민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문예지 편집자들은 간과해선 안 된다. 역동적인 문학운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 매체의 단명성을 극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 나오는 문예지들은 수십 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학매체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 문예지는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 지역과 생태주의의 교섭을 도모하는 부산의 『신생』, 지역작가회의의 기관지로서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부단한 탐색을 보이는 제주의 『제주작가』와 인천의 『작가들』은 지역문학운동에서 요구되는 매체 투쟁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4. 마무리

지역문학은 지역적 실천을 토대로 세계를 내다보는 문학이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지역문학은 국가주의와 서울중심주의의 폐해를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패배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지역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과 연계하여 인식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문학운동의 주체들은 지역문학을 통해 문학의 위기를 돌파

66) 이회환, 「한국문학의 토양을 객토했 지역문예지의 역할」,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476쪽.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견지하면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지역문학운동은 여러 영역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문제에 대한 치열한 탐색을 토대로 역사성과 구체성을 불어넣기 위해 리얼리즘 정신과 장소상상력을 견지하는 작가의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문제의 구체화를 통해 전 지구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호침투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수용·향유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학운동은 생활문학운동이어야 한다. 대중의 실제적인 삶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문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중과 더불어 실천하는 문학적 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

셋째, 지역문학에 이론적 틀을 세우고 학문으로 연구하고 실제비평에 힘쓰는 일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지역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가 활성화·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학 연구자·비평가에게는 '지역의 눈'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문학운동에서는 횡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중요하다. 지역 내의 시민운동 단체와 다른 지역의 문학단체는 물론이요 유사한 환경의 해외 지역 단체 등과의 문화적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문학운동에서는 매체 투쟁도 중요하다. 지역에 굳건히 뿌리를 뚫으로써 고유성과 지역성을 갖춘 문예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역동적인 지역문학 소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현 단계 지역문학운동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치우치다보니 작품의 실제에 대한 논거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함께 드러내려고 한 데 따른 문제로 판단되는바, 향후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자 한다.

●핵심어: 지역문학, 문학운동, 리얼리즘, 생활문학, 문화적 연대, 문예지

<참고 문헌>

- 장준만. 「지방은 식민지다」. 개마고원, 2008.
- 고명철. 「빼꽃이 피다」. 케이포북스, 2009.
-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 구모룡.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크」. 『작가들』 2007년 봄호, 35~42쪽.
-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승환. 「지역문화예술의 새로운 전망—신지역주의」. 『제주작가』 2000년 하반기호, 275~303쪽.
-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문화연구』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31~69쪽.
- 남기택·김화선 외. 「경계와 소통, 지역문학의 현장」. 국학자료원, 2007.
- 민현기. 「대구 지역 문학운동의 역사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법 연구」. 『어문학』 제80집. 한국어문학회, 2003, 265~289쪽.
-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이순옥. 「지역문학과 문학현장—통영·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3. 국어교과교육학회, 2002, 171~195쪽.
- 이현식. 「문화도시로 가는 길—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찰」. 다인아트, 2004.
- 이희환. 「지역문학의 연대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2006 봄호, 64~78쪽.
- 이희환. 「인천아, 너는 엇더한 도시?」. 역락, 2008.
- 장희권. 「문화연구와 로컬리티」.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학회, 2009, 171~203쪽.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 조명래.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올아카데미, 2002.
- 최강민. 「새로운 리얼리즘을 위한 비판적 동침」. 『내일을 여는 작가』 2008년 가을호, 60~77쪽.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7.
- 최원식. 「80년대 문학운동의 비판적 점검」. 『민족문화사연구』 제8호. 민족문화사학회, 1995, 62~79쪽.
- 최원식.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0.
- 하상일. 「생산과 소통의 시대를 위하여」. 신생, 2009.

<Abstract>

The Validity and Direction of Local Literary Movements

Kim Dong-yun

Local literature should be the one that has an eye to the world, based on local activities. At this stage, local literary works have their meanings only when they free themselves from defeatism by realizing the problems of nationalism and Seoul Centerism. Therefore, local movements should be campaigned with confidence and belief that literary crisis can be ridden out through local literature.

Local literary movements should be driven both in many areas and in a variety of ways. First, writers need to have realistic viewpoints in order to have historicity and concreteness based on the exhaustive investigation into local problems. Second, literary climate in which the public participate should be created by launching practical literary movements that penetrate into the public's real lives. Third, local literature should have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critics and studies of local literary works should be streamlined and activated. Fourth, there needs to be a strong cultural solidarity between local literary groups and groups in other parts of the nation and abroad. Fifth, the communication system should be build with focus on literary media such as literary magazines that have their roots in the local area.

•Key Words: local literature, literary movement, realism, practical literature, cultural solidarity, literary magazine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